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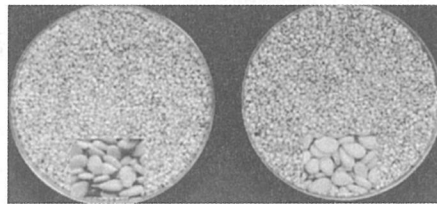
수량이 많고 역병에 강한 흰색 참깨 ‘유미’

이 병 규 두류유지작물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값싼 수입산 참깨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산 참깨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 참깨재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참깨품종 육성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량성이나 재배안정성, 품질 면에서 소비자 및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개발이 부족했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新品种 ‘유미’를 개발했다.



▲ 성숙기의 유미



▲ 유미

▲ 양백

● 수량성이 높고 내병성에 강한 ‘유미’

‘유미’는 희색 참깨로서 ‘양백개’와 SIG950480-2-B-6-3-1을 유전적 배경으로 하며, 성숙시기가 기존의 양백개와 비슷한 중생종이다. ‘유미’는 그동안 개발된 흰깨품종들 보다 키가 크고 꼬투리수가 많아 수량이 높고, 역병에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

수량성은 106kg/10a로서 기존의 ‘양백개’ 대비 8% 이상 높았고, 기름함량도 49.7%로 높아 착유 및 조미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참깨 종실에 들어있는 대표적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 함량이 6.6mg/g으로 높아 농가 및 소비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여 참깨의 재배 및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량성이 높고 내병충성이 개량된 품종 지속 개발돼야

현재 다양한 참깨 품종들이 육성되고 있으나, 잦은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 증가와 병해충에 약해 참깨의 재배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종 기상재해와 다양한 병해충에 저항성을 지닌 품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新品种의 육성은 농가소득과 직결되기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산 참깨와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품질의 차별화를 위해 리그난 등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품종개발도 필요하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참깨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재배가 절실한데 기계화 재배를 위한 수확 시 종실의 알 떨어짐(탈립)이 적은 품종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3년 12월호)